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서비스 R & D 시범사업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이선희** · 장영은*** · 고정은**** · 김윤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증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방적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그 적용 결과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6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증진 사회서비스 R&D의 일환으로 개발한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9회기 걸쳐 시범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참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초역량 강화 중심의 접근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해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양육 강의가 아닌 대안적 상호작용 체험 위주의 진행 방식은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계상의 고민과 문제를 통찰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로서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의 공급과 확산을 위한 학교 역할

- 본 연구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HI15C0401).

* 본 연구의 모든 과정은 저자들의 소속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됨(승인번호 1041078-201505-HRSB-086-01).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주저자(gsunlee@cau.ac.kr)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교신저자(yechang@cau.ac.kr)

****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공동저자(jungeunko@khcu.ac.kr)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 공동저자(yunmin82@cau.ac.kr)

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참여 어머니들의 프로그램 경험이 자조집단 발달로 이어지는 성과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편적이고 예방적 성격의 사회서비스가 부모교육 및 전문상담에 대한 잠재 욕구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screening) 또는 서비스 진입점(entry point)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진다.

주제어: 부모자녀관계, 가족관계증진, 사회서비스, 예방, 집단개입, 초점집단면접

I.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문제 뿐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형태와 관계유형이 생겨나고 있어 가족관계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 비행, 소외, 고독사 및 자살과 같은 사회문제의 중심에 가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지적되어 왔다(조선주 외, 2010; 여성가족부, 2013). 특히 빈곤가족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가족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필요한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족문제에서 파생된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Elder, et al., 1985; Lempers, et al., 1989; Conger, et al., 1994). 이와 더불어 일인가구,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여성가족부, 2015).

가족은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애정 및 자녀출산, 자녀양육과 교육, 휴식·오락·종교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이와 동시에 가족이 포함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성에 대한 통제, 사회구성원 충원, 노동력 제공 및 경제 질서 유지, 사회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기능 등 사회를 안정시키는 대외적 기능을 수행한다(이영주·최경화·정윤테·김현희·오정아, 2015). 가족생활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며 그 중 가족응집성이나 평등한 가족관계, 가족 간 의사소통의 질, 또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구성원의 행복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Olson, 2000). 국내 연구에서도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감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8).

나아가 가족관계 중 부모자녀관계는 가족 구성에서 중심을 이루는 관계이며, 특히

자녀의 성장에 따라 관계의 특성과 역할도 변화하는 발달적 특성을 가진다(Bigner, 1989). 가족관계는 이러한 발달적, 상황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다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 나가며 구성원들이 습득한 관계맺기의 개념과 기술은 학교와 사회생활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역량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다양한 이슈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적절히 대처하는 역량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자녀에게는 부모와의 원활한 관계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고양하고 대인관계 기술과 역량을 발달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또래 및 교사와 원활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아동·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부모자녀 관계의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정주영, 2006; 김종운·이명순, 2009). 그럼에도 실제로 프로그램에 두 세대 가족(부 또는 모와 자녀)이 참여한 연구는 일부에 불과하다(정남주·이영환, 2010; 김효선·선우현, 2014; 유고운·최은영·공마리아, 2016). 또한 일부 선행연구는 양육의 어려움이 드러난 가족(김효선·선우현, 2014), 자녀의 문제 행동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한 가족(정남주·이영환, 2010; 유고운·최은영·공마리아, 2016)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관계증진이라는 예방적 성격 보다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거나 가시화 된 이들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가족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 다양한 사회문제의 기원을 가족문제에서 찾고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나 이와 동시에 정작 가족 내 문제는 사적인 영역으로서 가족원 개인이 감당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접근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개별구성원의 합 이상의 존재인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강점관점(Saleebey, 1992) 및 포스트모던 관점(White, 2012)과 같이 가족을 바라보는 비전통적 관점에 토대를 둔 접근의 보편화 움직임이 요구된다. 이들 관점에 기반 했을 때 가족은 구성원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기 위한 그들 고유의 기술, 능력, 지식, 통찰력을 보유한 존재로 이해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들의 강점과 레질리언스(resilience)에 초점을 둔 실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이영주 외, 2015).

가족단위의 관계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는 개별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위기의 사전 예방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라는 사회적 성과와 관련이 있는 만큼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의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개인과 가족의 불편을 넘어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생활공간으로 확대되는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관찰이 되고 사후에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특성을 띠기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부담(조선주 외, 2010)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이나 위기가족, 또는 특정한 문제와 갈등을 안고 있는 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가족의 관계역량을 향상시키는 예방적 차원에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행 사회서비스 영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원, 보육 및 저출산 문제해결, 또는 노인이나 보건의료의 욕구충족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부문의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가족역량강화와 관련된 사회서비스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13, 2014; 박세경, 2014). 또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가족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행 사회서비스는 공익형 사회서비스라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서비스 공급 기관의 진입과 그에 따른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서비스 대상의 확대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진은 기존에 공공 영역에서 실시되는 가족관계증진 관련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예방적이며 보편적인 접근을 기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진 사회서비스 모델개발 R&D 사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R&D 사업에서 개발한 여러 가족관계 프로그램(부모자녀, 부부, 원가족) 중 초등학교(저학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범 실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을 관계증진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기존의 가족대상 사회서비스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 대부분 진로 및 행동특성과 같은 내용을 다루어 왔거나, 관계증진을 내용으로 한 경우에도 청소년기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같이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근거하였다(이선혜 외, 2016).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예방적인 프

로그램이 기존의 프로그램과 가진 차별성을 확인하고, 본 프로그램의 결과로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과 자녀와의 관계 역량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효과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존 부모자녀관계 관련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공공부문, 즉 정부 여러 부처에서 가족 및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이선희 외, 2016), 가족관계증진 관련 사업을 가장 많이 진행한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로 나타났다.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내용별로 살펴본 결과, 주로 부모-자녀 관계 또는 의사소통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관계증진 기술을 익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는 연령대별, 상황별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이 가장 많았고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회복과 강화를 위한 사업은 교육, 자녀양육 코칭, 가족집단 상담을 비롯하여 교육 요소가 가미된 체험여행 문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사회적 요구 대비 사업량이 미미하며, 고용노동부의 경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육이나 상담을 받는 사업보다 대부분 체험활동이나 캠프 등을 통한 일회성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이선희 외, 2016). 종합해보면,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사업은 주로 이용자 본인 혹은 가족의 심리 및 정서 상태를 파악하거나, 가족의 관계증진에 취지를 둔 교육과 문화체험을 하는 프로그램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문제 중심적 접근을 취하며 해결방법 역시 일방적 교육 위주로 제한적이었다. 구성원 개인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가족구성원이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다져가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유영주 외, 2008), 부모자녀 간의 갈등과 문제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을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의 관계적 역량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체계적 입장에서 볼 때, 가족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단위이자

유기체이다(Bowen, 1978). 체계로서의 가족은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의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는 고유의 상호작용 패턴에 기초하고 있다.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형성하는 관계의 성격은 불가피하게 다른 가족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가족 전체의 역동에도 작용하게 된다(정문자 외, 2018). 따라서 개인의 기술이나 지식의 증진이 아닌 '관계'를 초점으로 하여, 가족 하위체계의 경계, 하위체계의 상호작용 패턴,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하위체계의 변화 등 가족 역동에 대한 이해(장휘숙, 2008)를 바탕으로 가족구성원들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고 관계 방식에 대한 통찰과 역량을 제고하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요구된다. 기존 사회서비스는 주로 개인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성원 각자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받는다 해도 그러한 개별적 서비스는 보다 큰 체계로서의 가족관계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회서비스의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자신의 역량과 강점을 파악할 뿐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관계 방식을 스스로 탐색하고 발전시키는 존재로서의 성장이 가능할 때, 체계로서의 가족이 가진 전체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부모자녀관계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많은 연구들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부모자녀 관계 증진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경험은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관련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이었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의 한 예로, 민성혜, 김경은과 김리진(2011)은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4회기에 걸쳐 실시하였고,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증가하고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양성순(2015)은 직장어린이집 내 학령전기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동화책을 활용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유아의 읽기 흥미도가 증진되고, 어머니의 의사소통 능력 및 부모역할불안이 감소하였다.

이렇듯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 측면에서 ‘부’ 또는 ‘모’ 중심으로 편향된 경향이 드러나며 상대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증재나 치료적인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최근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세 가족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놀이음악치료 프로그램을 6회기에 걸쳐 실시한 결과, 가족친밀도가 증가하고 가족 간의 의견수용 및 지지가 증가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효선·선우현, 2014). 정남주와 이영환(2010)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10명의 유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기법을 적용한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유아의 위축 및 불안의 감소와 어머니의 공감능력 향상을 보고하였다. 유고운, 최은영과 공마리아(2016) 역시 문제행동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상호작용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키고,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향상시켰다. 요약하면, 부모자녀 관계 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 연구들은 일관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동향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적인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를 배제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녀가 함께 참여한 경우에는 자녀가 특정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대응기술을 연습하기 위하여 자녀를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경우다(정남주·이영환, 2010; 김효선·선우현, 2014; 유고운·최은영·공마리아, 2016). 즉,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녀의 성향을 이해하고, 자녀에 대한 이해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조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평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둘째, 효과 분석을 위해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특정 역량에 대한 양적 평가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연구변수 역시 자녀의 문제행동,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민성혜 외, 2011; 양성숙, 2015), 또는 의사소통기술(김종운·이명순, 2009)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관계증진 프로그램이 가지고 온 부모자녀 간 관계역량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자녀의 자아존중감(김종운·이명순, 2009)과 같은 연구변인이 다루어진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자녀의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의 변화를 반영하므로, 관계증진의 직접적인 효과성 변수로는 한계가 있었

다. 다시 말해,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자녀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시켜 파악하며, 실제 생활에서 자녀를 비롯한 가족원과의 관계에서 증진된 관계역량을 현실화시켜가는 과정에 대한 피험자 본인의 고찰과 의견을 질적인 연구의 차원으로 파악한 경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질적인 방법은 양적인 연구방법에 비해 이해의 깊이와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즉 질적 연구는 태도와 행동에 있어 미묘한 차이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사회적 과정을 연구하는데 효과적이다. 이와 동시에 객관성이나 일반화 가능성은 양적인 연구에 비해 취약할 수 있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시범적 적용의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의 경우 대부분 표본의 크기가 작고, 구조화된 설문조사에 비해 심도 있는 의견을 파악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초점집단 면접과 같은 질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만족의 정도와 역량의 변화 뿐 아니라 후속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발전방안에 관한 내용도 역동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Rubin & Babbie,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의 양적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삶의 변화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질적연구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적 접근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관계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미술치료(정남주·이영환, 2010) 및 놀이치료(노남숙·한유진, 2014) 또는 상호작용치료(백지은, 2012)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서, 보편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3.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방향성

20세기 후반 세계와 인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사고방식인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사회를 설명해 온 다양한 이론들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문화 현상 즉, 탈 근대적인 현상을 해석하는 논리적 틀로 이해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획일성, 동질성, 통일성과 같은 합리주의 전통에 대항하여 다양하고 개성적인 것을 존중하며, 보편적 가치로 여겨왔던 것들에 의문을 제기한다. 오늘날 우리가 절대시 하는 질서와 규범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에도, 가족의 다

양한 삶의 방식과 가족의 어려움을 절대적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함으로써 휴먼서비스가 가족을 대상화하고 스티그마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가족 개념, 구성원 역할, 관계 방식 등과 관련하여 '가족이란 이래야 한다'는 준거틀, 익숙한 습관, 신념, 선입견 등에 의문을 던지고 낯설게 바라보는 렌즈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이 선호하는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과정에 가족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고미영, 2011).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접근에서는 가족에 대한 기존의 기능·역기능, 정상·비정상 패러다임과 거리를 두면서, 각 가족이 관계에 대해 어떤 고유한 이해와 방식을 갖고 있는지, 가족으로서 관계에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White, 2012). 각 가족이 가진 관계에 대한 나름의 지식, 노하우, 전략 등을 풍부히 하는 방법과 해결에 초점을 두는 전략으로 접근하여 문제 여부나 정도와 관계없이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험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대안적 관계맺기를 체험하도록 하는 전략은 가족관계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잠재적 욕구를 표면화시키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참여자 인식을 향상시키고 예방과 조기 개입의 계기를 만드는 게이트키퍼 역할은 가족관계증진에 초점을 둔 사회서비스가 추구해나가야 할 하나의 지향점이 될 수 있다.

4.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

본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은 다양한 가족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회서비스로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호혜적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과 역량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다중가족 집단프로그램이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나고 자라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므로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존기술이다. 가족은 이러한 생존기술을 터득하고 연습하는 첫 번째 장이며 학교와 일터는 가족 안에서 터득한 역량을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터전이 된다. 본 프로그램 전반을 관통하는 관점과 이론에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White, 2012), 가족체계적 관점(정문자 외, 2018), 가족생활교육 접근(Bredehoff & Walchestki, 2011), 정신건강증진(mental health promotion)이 포함된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는 가족의 특수한(idiosyncratic) 이슈(Minuchin, 1974)를 문제 또는 역기능으로 정의하거나 그것

의 개선에 집중하기보다 예외와 가능성의 확대로 초점을 이동시킨다. 이러한 전환은 참여 가족의 관계자원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적극적 참여와 파트너십 도출을 용이하게 한다. 가족체계적 관점은 가족구조, 가족역동, 가족의사소통 등 가족관계 질의 지표가 되는 영역에 있어 표면적 행동변화(일차변화)에서 나아가 근본적 패턴변화(이차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특정 행동을 습득하는 것보다 대안적 관계를 위한 시도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려는 본 프로그램의 근거로 적절하다. 한편, 가족생활교육은 전통적으로 갈등예방과 관계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관계 관련 지식 및 기술의 집단교육을 통해 가족발달단계의 전이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편적 이슈를 다루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점은 가족이 서비스이용에 대한 편견과 스티그마 없이 자신들의 가족관계 이슈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그 외 정신건강증진 패러다임은 증진이 문제 발생 이전에서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용됨을 적시하고 있어(Mrazek & Haggerty, 1994), 가족관계 이슈의 경증이나 단계에 관계없이 관계 악화 방지 및 개선에 초점을 두는 접근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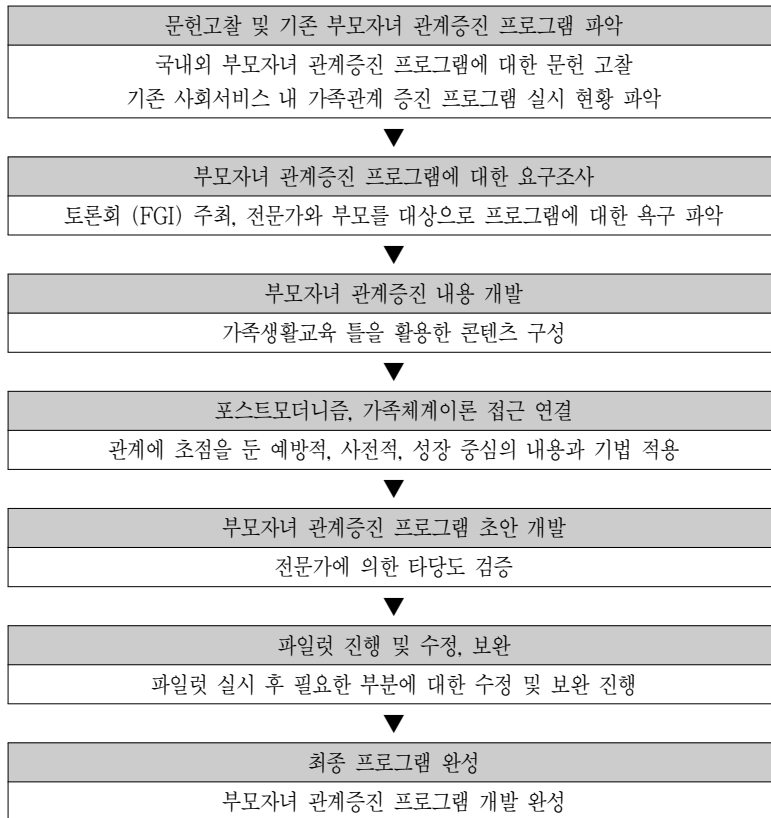
Ⅲ. 부모자녀 관계증진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의 목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부모 중 한 명과 자녀 한 명이 동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한 양육 지식 또는 기술의 전달이나 자녀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반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속성을 이해하며 부모 자녀 간 호혜적 관계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본 프로그램은 가족 간의 관계역량 FRQ(Family relational quotient)을 향상시켜 가족관계가 한 차원 더 성숙한 단계로 이동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는데, 이러한 이동은 관계역량일반 RQ(Relational quotient) (Liang et al., 2002)의 발달을 동반하면서 학교나 일터 등 삶의 여러 현장에서 보다 풍요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

본 프로그램은 가족관계증진 사회서비스 모델개발 R&D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림 1]의 단계를 거쳐 개발되었으며, 초안 개발 이후 여러 차례의 파일럿 진행 결과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그림 1]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절차

3. 프로그램의 구성

본 프로그램은 연속성을 가진 9회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모자녀관계를 객관화시켜 이해하기’, ‘부모자녀의 공통 현실 구성하기’, ‘부모자녀 상호 차이를 수용하고 표현하기’라는 세 개의 대 주제 안에 각각 3회기의 세부 주제가 포함된 방식이다. 이들 대

주제는 포스트모더니즘 적 요소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인 부모와 자녀가 그동안 그들의 관계 상황 속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받아왔던 고정관념, 사회적 담론 등을 탐색하여 주체적으로 그 관계를 재조망하게 한다(1-3회기). 또한 부모자녀 간 공유된 과거경험에서 그동안 가려져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그들만의 독특한 경험, 그 경험 속에서의 그들만의 의미, 자원 등을 새롭게 인식, 해석함으로써 이를 계속해서 연결하여 확장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4-6회기).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된 것들을 실제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간의 서로의 의사소통방식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연습을 하도록 하며, 향후 부모자녀간의 선호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에서 더 나아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7-9회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기별 목표를 설명하는 제목과 구체적인 세부 목표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은 <표 1>과 같다. 본 프로그램은 연속성을 가진 9회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모자녀 관계를 객관화시켜 이해하기(1-3회기)’, ‘부모자녀의 공동 현실 구성하기(4-6회기)’, ‘부모자녀 상호 차이를 수용하고 표현하기(7-9회기)’라는 세 개의 대주제 안에 각각 3회기의 세부 주제가 포함된 방식이다. 이를 위해 1-3회기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경험을 제공하는 과정을 진행하며, 4-6회기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생각과 느낌에 차이가 있는 존재임에도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상대를 바라보기보다 그 간격을 적절히 협상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7-9회기에서는 차이와 간격을 협상하기 위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소개하고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포스트모던 관점에 근거하여 부모자녀의 관계이슈를 부모 관점에서 정의하고 해결할 사안으로 접근하기보다 개인들 간의 간주관성이 작용하는 영역이라는 이해를 발달시키고자 하였으며, 가족치료 및 상담에서 흔히 제공되는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경험, 관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의 표현, 의사소통 훈련의 요소를 포함시켰다. 또한 개입 단위에 있어 가족생활교육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다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프로그램 방식을 동원하여 집단역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회기별 주요 활동은 현장에 널리 알려진 것들이나 수행되는 방식을 차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다양성(가족구조, 성격특성, 표현방식) 개념의 발달, 이차변화 유도, 관계의 양방향성 이해 등의 발달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성격이나 소통방식 검사는 유형 파악 자체보다 관계에 대한 통찰과 대

안 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촉진한다든가, 활동 수행시 특정 지침을 제공하여 성인(부모)이 주도하는 현상을 최소화함으로써 관계의 양방향성을 경험하게 한다든가(말하기-듣기연습), 활동 결과가 성공-실패, 정상-비정상, 옳음-그름 등의 차원에서 비춰지지 않도록 해체질문(White, 2012) 등을 수행하였다.

〈표 1〉 프로그램의 구성

회기	제목	세부 목표	주요 내용 및 활동
1	부모자녀에 대한 우리 생각 펼치기	· 프로그램안내 · 참가자 친밀감 형성 ·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의지와 동기부여	프로그램 참가동기와 기대알기 부모와 자녀 대항 자신의 자녀와 부모의 장점 나누기
2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가?	·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보기	자녀와 부모가 전신상 그리기 활동을 통해 상대의 몸과 마음에 대해 인식하기
3	우리의 생각, 가족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	· 부모자녀의 생각 차이를 알아보 고 서로의 차이를 협의하기	활동지를 통해 생각차이 인식 및 영향 알 아보기 차이를 좁히는 소통 과정을 경험하기
4	동일한 사건, 다른 해석	· 부모자녀가 주관성 개념을 이해 하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소 통하기	협동하여 숨은(틀린)그림 찾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 그리기
5	성공한 경험 발견하기	· 부모자녀의 의미있는 경험(사 건) 확인하기	행복했던 순간 나누기 활동 의미있는 경험 요소를 도출하고 풍부히 이 야기하기
6	성공한 경험을 확장하기	· 가족의 성공 경험을 확장하여 부모자녀의 기대를 구체화하기	자신의 관계 기대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구체화하기 가족규칙과 바람을 담은 보드게임판 만들기
7	듣기의 예술: 부모자녀	· 부모와 자녀의 대처방식과 소통 유형 이해하기(부모)	에니어그램 실시, 가족조각 활동 듣기의 걸림돌 요소 찾아보기
8	말하기의 예술: 부모자녀	· 우리 가족에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경험하기	말하기 훈련 워크시트, 양방향 대화연습 (공주고받기 활동)
9	우리가 바라는 부모자녀 관계는?	· 부모자녀가 함께 바라는 관계상 을 구성하기	소통 촉진 요소 찾아보기 일상에서 바라는 관계의 모습 나누기

4. 프로그램의 구현

본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은 수년간 다양한 심리정서프로그램을 진행해왔던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과정은 다

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진은 앞서 개발한 부모자녀 관계증진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프로그램 초안을 자문하였던 상담기관에 협업을 요청하였고, 해당 기관에서는 소재지 초등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접촉하고 참여 의향을 타진하였다. 이에 해당 학교가 본 연구진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참여를 결정하면서 본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게 되었다. 본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족은 해당 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6가족의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자녀와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와의 소통이 보다 활발하고 원만해지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본 프로그램 시행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적절한 대상을 추천하였다.

세부적으로, 해당 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평소 학생이나 학부모와 빈번한 교류가 있었던 관계로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없으나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적절한 부모 역할 수행과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이들에 대한 파악이 가능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부모자녀 관계 향상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있으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특정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된 상황에 직면한 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전문적 개입의 이력이 없었던 가족들로 본 연구의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부모자녀관계의 심각한 문제가 가시화된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전문가적 개입의 경험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부모가 고민하는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통한 원만한 관계 형성의 필요성은 인식하여 학교에서 진행하는 관계증진 교육에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하여 그들에게 본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는 한편, 담임교사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배부하여 부모자녀관계 향상에 대한 욕구가 있는 몇 가족을 추가로 발굴하였다. 본 사업의 예방적 특성상 참여기준에 특정한 문제나 가족구조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며, 대부분 취약계층에 해당되지 않아 그간 참여대상의 자격이 제한적인 학교기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 추천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족 등 다양한 모습이지만 공통적으로 부모자녀관계 향상에 관심이 있고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가족들이 본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현장 구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참여자들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효능감을 측정하는 관계지수(RQ: Relational Quotient)에 대한 설문을 통해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 진행 이후 사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관계지수의 사전-사후 비교 결과, 관계 지수 평균이 사전 45.00점에서 사후 50.20점으로 전반적으로 향상된 결과가 포착되었다. 또한 통계상의 제한적인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교육 전문가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가족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프로그램 개입 이전의 참여자의 부모자녀 관계 탐색을 시도하였다. 프로그램의 현장 구현은 앞서 개발된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협력 상담기관 실무자가 진행하고 연구진이 참여 관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9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의 현장 구현 직후, 사후조사와 간담회 형식의 FGI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소감과 변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참여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된 추후(follow-up) FGI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변화가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실천되어 왔으며 이러한 영향력의 지속성 정도 파악에 비중을 둔 본 연구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IV.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기존의 부모대상 프로그램과의 차이에 대한 질문으로서, 연구참여자들이 본 프로그램을 경험한 뒤, 프로그램 이전이나 이후에 경험한 부모교육 및 상담 등과 어떤 차이점을 느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본 연구가 프로그램 실시 후 약 9개월 후에 진행 된 추후(follow-up) 면접인 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즉, 연구참여자가 실생활 속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프로그램으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묻고자 하였다. 마지막 부분은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확장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 또는 향

상되었는지 물었으며, 프로그램의 참여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부모자녀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다른 노력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기존 부모교육 및 상담프로그램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은 참여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연구문제 3.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은 종료 이후 참여가족의 관계 형성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9회기에 걸친 부모자녀관계 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6쌍의 어머니-자녀 참여자 중 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 중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들이 FGI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개인적인 이유로 FGI에 참여가 불가능한 이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가장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수렴하여 FGI를 진행했다. 또한 어머니들이 그동안 자녀와의 소통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한계를 보다 진솔하고 가감없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이 직접 FGI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프로그램 참여 이후 가정에서 아동들이 표현한 변화와 느낌을 어머니가 전달해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면접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성별	연령	자녀수	자녀 연령	가족구성
1	참여자1	여	41세	2명	9세, 6세	3명
2	참여자2	여	37세	3명	10세, 8세, 8세	5명
3	참여자3	여	38세	1명	9세	3명
4	참여자4	여	38세	3명	11세, 9세, 2세	5명

3. 초점집단면접 절차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참여자들이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상호작용하며 특정 주제를 다층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상승효과를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Vaughm et al., 1996). 어머니들이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을 경험하였지만, 가족구조, 자녀 수, 자녀 성별, 그리고 자녀의 성향 면에서 상이하며 어머니 자신의 연령대도 다양함을 고려할 때, 정형화된 측정방법보다는 심층면접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FGI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 9개월 되는 시점인 2017년 11월 13일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사전에 해당 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게 연락하여 면접의 취지를 밝힌 뒤, 프로그램 참여자 중 면접에 응할 의사가 있으며 참여가 가능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면접 일정을 진행하였다. 9개월 전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당시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았을 뿐 아니라 이후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프로그램 시행을 요청할 정도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9개월 이후 진행한 FGI를 위해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면접에 대한 참여자의 거부감이 거의 없어서 비교적 원만하게 FGI를 진행할 수 있었다. FGI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초등학교의 교육복지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참여자들의 즉각적이고도 풍부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실무자 1인과 프로그램 개발과 관찰에 참여했던 연구자 1인이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참여자들에게 친숙한 연구보조원 1인이 배석하여 녹취와 진행을 지원하였다.

V. 연구결과

1. 본 프로그램의 차별성

1) 관계에 대한 이해와 통찰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부모교육이 자녀에 관한 특정한 주제나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에 비해 본 프로그램은 자녀와의 관계 형성, 본인과 자녀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특징에 대해 전반적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차이로 들었다. 본 프로그램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를 보다 성숙된 방식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 본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자기 성찰적인 기회를 가졌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A: 감정을 적고 그릴 때 (아이에게)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았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부족했던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B: 전에는 화를 정말 많이 냈어요. 듣기 싫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나와 버리곤 했는데 지금은 **에게 엄마도 소리 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할테니까 **도 노력해 줘 그러면 본인이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A: 감성코칭을 받고 싶었던 것처럼 작년에 매년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 이지만 늘 제가 부족한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작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가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구요. 늘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찾은 것 같아요.

또한 참여자들은 어떠한 관계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경험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본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관계의 특정한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참여자의 불안을 유발하는 접근이 아닌, 관계의 보편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A: 아이들도 거부감이 없었고 우리 집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2) 체험형 집단프로그램 방식

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부모교육이 취하고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과는 달리 직접적인 체험을 동반하는, 상담적 특성을 띠는 소규모 집단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에 따르면 내용은 풍부하고 유익하나 실생활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부모교육에 비해 이러한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개별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머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고민과 문제를 발견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특정 문제를 바탕으로 한 중재프

로그램이나 제한적인 대상에게 제공되는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반 부모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체험형, 참여형 활동이 일반적인 부모교육과 차별적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A: 저는 자녀와의 관계가 원활해야 좋을 것 같아서요 부모강연 위주, 자녀 감정 코칭을 들었는데 솔직히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집에 와서 실제 생활에서는 개입이 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으로 실행되지가 않아요.

D: (기존의 부모교육은) 아무래도 아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들을 강연이 아니고 마음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이가 다르니까 응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 동반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 생기기 전에는 많이 들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잘 되지 않아요.

또한 개별상담과 같은 근거리 면대면 방식에 비해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와의 소규모 집단 진행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인 것으로 파악된다.

A: 1대1 상담이었다면 저는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혼자라는 마음에, 그나마 소규모로 있으면 부담 없이 내 속을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1대1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3) 가족단위 참여방식의 차별성

참여자들의 심층면접 결과, 본 프로그램은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어머니 자신의 특성 뿐 아니라 각 자녀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두 사람의 개인이 부모-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의 단위로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의식하고 그 점을 일상 속에서 적용하는 시도를 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교육프로그램에서는 개별 자녀의 특성 파악이 용이치 않으며, 따라서 자녀를 이해하고 기다리라는 교육 내용이 다소 피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면, 본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 자녀의 특성에 대한 개별적 분석이 제공되기 때문에 부모행동에 대한 지침의 체감도가 높았다

는 점이 여러 참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B: 선생님께서 자녀의 성격 특성을 말씀해주셔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 애는 머릿 속에 기승전결이 다 있어서요. 이 애는 기다려줘야 하는 아이예요” 라고 한 말씀이 계속 기억나서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요. ‘머릿 속에서 생각하는 아이 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A: 네, 그동안은 말로만 아이에게 감정을 표출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이도 표출하지 못했는데, 수업(프로그램)을 듣고 나서는 아이에게도 도움이 돼서 지금은 약간은 표출하는 것 같아요. 아이랑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A: 아이도 듣기만 하는 강연은 힘들지만 활동을 통해 아이와 엄마가 같이 또 따로 분리 돼서 하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4) 학교를 통한 서비스 공급

학교가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주선하고, 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참가자 모집 및 프로그램 진행 장소 제공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참가자의 신뢰 및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저는 학교에서 다른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말이 부모교육이고 강연이지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낯선 사람들과 듣다 보니 질문사항이 있어도 꺼려지고 강사 선생님들의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한계가 있었는데... 작년에 학교 측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소규모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B: 이 프로그램 하는 내내 매주 아이가 엄마가 학교에 온다고 좋아했어요.

2.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가족관계의 변화와 효과의 지속(가능)성

1) 부모-자녀 관계의 역량의 변화

프로그램을 경험한 이후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참가자가 인식하는 관계 역량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어머니들은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과, 그에 따라 변화하는 자녀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자신의 행동이 부모-자녀 관계에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감소하며, 이 노력으로 인해 자녀의 반응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C: 전에는 화를 정말 많이 냈어요. 듣기 싫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나와 버리곤 했는데... 아이한테 지금 12시인데 몇 시에 우리 어디 갈 거야라고 시간관념으로 말을 해주면 아이가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제 말을) 따른다고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것도 듣진 않았어요. 소리 지르고 때리고 했었는데 조금씩 (이 방법을) 해주면 아이가 스스로 변화되더라구요. 아직은 떼쓰고 화를 내긴 하지만 조금 지나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오더라구요. 그래서 “엄마도 소리 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할테니까 ○○도 노력해줘” 그러면 본인이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2) 프로그램을 통한 주체성의 발달

심층면접에 참여한 이들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스스로의 변화를 인지하고, 관계 증진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참여자들이 변화를 추동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역량을 강화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계 변화에서 참여자들의 주체성이 강화된 측면은 소극적인 ‘인식’에서 적극적인 ‘실천’으로의 전환으로 대표된다. 이를 통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된 것이다.

A: 아이들이 셋이거든요 귀는 두 개니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뒤에 아이한테 “잠깐만 기다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구요.

D: 실천을 하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머릿속으로만 알게 된 것을 실천적인 행동으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C: 처음에는 선생님이 (아이와 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이야기 하면 그저 그랬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물어보면 “아이하고 주말이나 평일이나 놀아주는 방법을 잘 몰랐는데 공차기라도 알려주시면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노력해볼게요” 라고 되더라구요.

3. 프로그램의 결과 및 확산

1) 어머니 자조모임 형성

본 프로그램의 참여가족은 이후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서로 자녀 돌봄의 품앗이를 하거나, 학교 내 정보, 그리고 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 자조모임에 대한 질문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이 어머니들 간의 양육공동체로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심층면접에서 참여자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덜고,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상의하며, 친목을 도모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들은 프로그램이 학교 단위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중심으로 자조모임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A: 아이와 별개로 제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아요.

A: 아이들의 이야기는 일상 수다 정도인 것 같아요. 요새 우리 아이 짜증이 많아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A: 엄마들한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외부업체에서 듣는 것 보다는 학교를 통해서 만나게 된 사이라 조금 더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2) 잠재된 상담 및 치료 욕구의 인식

참가자들은 본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 자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노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피력하였다. 특히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고,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자녀와 어머니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참가자들이 있었다. 이는 문제중심

적 접근이 아닌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본 관계증진 프로그램이 참가자로 하여금 보다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관계 형성과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담의 경우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며,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가족 내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인식 등 심리적 장벽 역시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집단적 접근과 병행하여 개별 가족상담을 진행하거나 다른 가족원까지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가족 전체를 통해 지속되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B: 저는 상담을 받으려고 했는데 회기에 30만원인거예요. 유명하신 분이신건 아는데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기회만 있다면 저는 해보고는 싶어요.

B: (아이가) 늘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서...저도 쉽게 말을 하는 편이 아닌데 무엇을 물어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1대1로 상담을 받고 싶어요.

A: 만일 여섯 가족이 상담을 받았는데 누구누구는 상담 받으라고 하면 사실 좀 그래요. 모두 개별 상담을 받으라고 하면 괜찮은데, 저한테만 그러면 '우리만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죠.

D: 집단으로도 하고, 개인 상담 같은 것도 하고, 한 번은 힐링캠프 같은 것을 해서 가족들이 함께 지속되는 것들이 필요할 듯 하네요.

3) 아버지의 참여 필요성

본 프로그램이 확산되는 과정 중 대표적인 현상은 참가자가 다른 가족원, 특히 배우자의 참여를 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크다고 털어놓았다.

A: 사실 저도 남편이 참여했으면 좋겠거든요. 처음 아이를 키울 때 그저 물 흐르듯이 온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을 보면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키운 애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만일 남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생기면 저희도 꼭 참여하

면 좋겠어요.

D: 남자 애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요. 아빠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맡겨도 되는지 불안하기도 하고 남편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C: 만일 1박2일 캠프를 참여한다면 아빠와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참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엄마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는 남자 아이니까 저보다는 아빠를 좋아하는데 아빠가 놀 줄을 몰라요.

아버지의 참여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이 확장하여 부부가 참여하는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길 바라는 참가자도 있었다. 즉, 관계증진 프로그램이 가족 내 특정한 개인, 또는 특정한 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 존재하는 여러 차원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참가자 스스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양육참여를 바라고 자녀 양육의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부부 간 대화를 하고 싶지만 그런 기회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가족을 위하는 방식에서 부부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부부관계에 연결된다는 점을 참가자가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보강되었으면 하는 요구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D: 부부상담 같을 걸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나름대로 돈을 버는 것이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대화가 순탄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4) 공급방식 및 비용: 학교교육과 연계

참여자들은 본 프로그램과 같은 관계증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강하게 보였다. 특히 참여자들 스스로 다양한 주제와 형식 또는 공급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제안하여, 참가자들 내면에 관계유지와 개선에 대한 효능감과 의욕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특히 자녀의 성장과 함께 발달에 적합한 주제를 다루었으면 하는 요구를 표현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9회기에 걸친 장기 프로그램이었으나, 한 연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참가자들이 관심을 보인 주제는 사춘기, 성교육, 감정코칭 등으로 다양하였다.

A: 저는, 감성코칭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와 엄마의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았을 때 감성코칭에 대해서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B: 모델링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다른 집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도 하고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사실 저는 제 아이와 남의 아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성교육도 관심이 많아요... 여아인 경우와 남아인 경우에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할지 고민이 돼요.

B: (이미 당시에 필요했던) 수업을 했으니까 똑같은 프로그램보다 애들이 컸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D: 사춘기를 대비하는 것도 걱정이 돼서 미리 알아두면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급방식과 대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켜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A: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반영이 된다면 참여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수행평가 중 한 요소로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을 학교에서 필수요소로 진행해 주시면 남편들이 솔깃할 듯요.

A: 말로는 '같이 해야지' 라고 대답은 하지만 이런 참여시간이 있을 때는 '나까지 가야 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아빠 참여시간을 공지하면 어쩔 수 없이라도 참여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프로그램의 비용이나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특히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본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추가비용의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는 참여자가 많았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A: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방안을 들어봤는데 내가 부담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된다면 참여 할 것 같아요. 많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데 남편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비용관련 질문)

A: (한 회기에) 오천 원에서 만원 정도가 되면 큰 부담 없을 것 같아요.

A: 일단 아이들과 함께 알아갈 수 있고 다른 교육과는 다르니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Ⅵ.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결과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포스트모더니즘과 가족체계 접근에 입각한 가족관계증진 R&D 연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9회기에 걸쳐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6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 프로그램의 효과 및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참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 기법을 통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을 기존의 부모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문제에 비추어 연구결과를 정리해본 결과, 본 프로그램은 내용 및 운영 방식에서 차별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에 따르면, 특정 문제를 주제로 하는 일방적인 교육방식이 아닌 참여와 체험 방식을 통해 관심사를 다루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신이 인지하거나 의식하지 않았던 자녀와의 관계특성을 이해하고, 관계의 역량을 강화한 것에 대한 효능감을 피력하였다. 또한 자녀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른 가족원과 공유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구현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특정 행동이나 학업, 인터넷 중독, 의사소통 등의 제한적이고 문제중심적인 주제에 대하여, 또는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특정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을 넘어서서, 가족들의 공통 관심사에 초점을 둔 보편적인 관계증진 프로그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특성과 한계점을 분석한 연구(이 선혜 외, 2016)를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이 참여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 가지고 온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 관계역량이 증가하고, 관계에서의 주체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일부는 개별 상담에 대한 요구를 발견하였으며,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한 참여자도 있었다. 즉, 프로그램의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된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본인의 관계역량을 유지, 확산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본 프로그램과 같은 보편적이고 예방중심적 사회서비스는 부모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선별기능(screening)을 수행하거나 일부 참여자의 경우는 심화된 서비스로의 진입점(entry point)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특별한 가족문제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위주의 교육이나, 고가의 개인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피력하였다. 설사 문제를 지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편견과 스티그마)과 관련 정보의 부족 등이 장애가 되는 현실이다(김주미·유성경, 2002). 그런 의미에서, 본 프로그램과 같은 보편성에 역점을 둔 프로그램은 기존의 부모교육 및 전문상담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활용하게 하는 출발점과 같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종료 이후 참여가족의 관계 형성과 일상에서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관계증진 프로그램의 효과가 참여자 개인의 역량과 가족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확산되는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이후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친목을 다지고 있었다. 이는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사회서비스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공동체로 확산되었다는 증거이다. 참여자는 자조모임을 통해 자녀 성장에 따른 다양한 이슈를 함께 직면,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안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하나의 환류(feedback) 과정으로서, 프로그램이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지속되고,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며, 그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순환적인 과정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기존의 프로그램과 달리 특정한 문제를 가지거나 위협요인을 가지지 않은 가

족을 대상으로 접근하고자 한 시범사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가족관계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증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자조모임의 형성과 같이 긍정적인 결과물이 형성되고, 프로그램 종료 이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예방적인 지향점이 검증되었다. 즉, 문제에 대한 개입과 중재, 또는 치료의 효과를 그 목적으로 하지 않은 본 프로그램의 차별적인 효과성이 확인된 결과라고 요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관계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집단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확산을 위한 학교의 역할이 확인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서 상근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통해 학부모에게 소개되었고, 공개적인 참여자모집을 통하여 참여집단이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구현 역시 방과 후에 학교 교실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심층면접을 통해 학교라는 서비스 공급장소에 대한 친근함과 신뢰를 피력하였다.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녀가 익숙한 장소에서 어머니와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계증진 프로그램의 참여를 수행평가에 반영하거나, 아버지의 참여를 학교 차원에서 독려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 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학교사회복지와의 연계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다양한 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 역시 가지고 있다. 첫째,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자녀와 어머니에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심층면접이라는 연구방법의 한계로 인해 성인 참여자만을 분석하였으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효과 분석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프로그램에서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애착 등을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비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한다. 둘째, 비록 9회기에 걸친 다회기 프로그램이었으나 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효과에 대한 결과를 보다 모든 가족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점집단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프로그램 효과의 장기적 지속성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나, 반면 프로그램 효과의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검증의 측면에는 한계를 가진다. 초점집단분석은 집단역동성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효과 뿐 아니라, 이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과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만,

면접자의 의도에 맞게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거나, 집단 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휩쓸릴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Rubin & Babbie,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역과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 후 포괄적인 조사와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해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인 분석만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시범사업의 확대와 함께 분석 가능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양적인 사전사후 검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족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로의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행되었다. 그 결과, 가족체계의 역량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역할을 확인하고,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통한 가족단위 사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정책적,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미영. 2011. “한국 가족치료에 적용된 포스트모던 실천 원리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29-60.
- 김중운·이명순. 2009. “관계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 12(1): 61-76.
- 김주미·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요인”.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4(4): 991-1002.
- 김효선·선우현. 2014. “가족놀이음악치료를 통한 부모-자녀관계 증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1): 65-92.
- 이선혜·장영은·박정윤·고정은·최고운. 2016. “중앙정부 운영 가족관련 사업의 현황 분석”. 『사회서비스연구』 6(2): 51-79.
-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남숙·한유진. 2014. “애착문제 유아가족을 위한 인형을 이용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115-135.
- 민성혜·김경은·김리진.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아동학회지』 32(1): 31-49.
- 박세경. 2014.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2014(1): 30-40.
- 백지은. 2012. “집단 부모-자녀 상호작용 치료 프로그램 효과 -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 대상”.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1): 93-110.
- 보건복지부. 2013.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양성숙. 2015. “동화책을 활용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유아의 읽기 흥미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여성가족부. 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 _____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 유고운·최은영·공마리아. 2016. “CPRT 기반 부모-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2(1): 1-25.
- 유영주·김순옥·김경신. 2008. 『가족관계학』. 파주: 교문사.

- 이영주 · 최경화 · 정운태 · 김현희 · 오정아. 2015. 『가족복지론』. 파주: 양서원.
- 장휘숙. 2008. 『가족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정남주 · 이영환. 2010. “미술치료 기법을 적용한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부적응 행동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 『미술치료연구』 17(2): 379-413.
- 정문자 · 정혜정 · 이선희 · 전영주. 2018.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주영. 2006. “이혼가정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한부모가정연구』 1(1): 93-130.
- 조선주 · 김혜영 · 민현주 · 이선행. 2010. 『가족문제 예방의 사회적비용 절감효과 측정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igner, J. J. 1989. Parent-child relations. Collier Macmillan.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 Bredehoff, D. J., and Walcheski, M. J. 2011. Family Life Education: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Nat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Conger, R. D., Ge, X., Elder, G. H., and Lorenz, F. O.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2): 541-561.
- Elder, G., Nguye, T., and Caspi, A. 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56: 361-375.
- Lempers, J., Clark-Lempers, D., and Simon, R.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Liang, B., Tracy, A., Taylor, C. A., Williams, L. M., Jordan, J. V., and Miller, J. B. 2002. The relational health indices: A study of women’s relationship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1), 25-35.
- Minuchin, S. 1974. Families & Family Therapy. Harvard University Press.
- Mrazek, P. J. and Haggerty, R. J. ,eds. 1994. Reducing risks for mental disorders: Frontier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research,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 Olson, D. H. 2000.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Journal of Family Therapy 22(2): 144-167.

- Rubin, A., and Babbie, E. 2007.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Cengage Learning.
- Saleebey, D. ed. 1992.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Longman.
- Vaughn, S. R, Schumm, J. S. and Sinagub, J. M. 1996. Focused group interviews in education and psychology. California: SAGE Publication.
- 이선혜 · 허남순 · 정슬기 역. 2012. 이야기치료지도. White, M. K. 2007. Maps of Narrative Practice. 서울: 학지사.

Abstract

**Experiences of the Familie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Enhancement Group Program**

-Short-Term Results of a Social Service R & D Demonstration Project-

Lee, Sun Hae · Chang, Young Eun · Ko, Jungeun · Kim, Yun 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implement a prevention program to enhance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to explore the participants' experience of the program. For this purpose, a 9-session group program was provided on six children and their mothers who were recruited at the same elementary school in Seoul, Korea.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on the mothers and they were asked about the effectiveness and short-term outcome of the program. The major results emerged from the interview data were as follows. First, the solution-oriented approach resulted 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The experiential mode of the program, not a lecture mode, was pointed to be an advantage of understanding better their child as a person as well as providing insights on relationship concerns and issues. Next, the potential role of schools was strongly proposed in facilitating the supply and distribution of a social service program such as this; the relationship of the mothers as peer participants was developed into a self-help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is type of social service program with a prevention perspective can facilitate the screening of a potential need for or the entry into parent education and family counseling.

Key words: parent child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hip enhancement, social service, prevention, group intervention, focus group interview

[논문투고일: 2018.07.30, 심사일: 2018.09.06, 심사완료일: 2018.09.17]